

2026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지필평가'→'정기시험', 수행평가와 논술형평가 비율 30%로 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수업과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04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기준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로 안내되는 지침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2025년 수행평가 재구조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행평가 비율을 30%로 조정하고, 논술형평가 비율도 중학교 40%, 고등학교 35%를 모두 30%로 변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개정 의도를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기존 용어인 '지필평가'를 '정기시험'으로 변경해 수행평가와 위계를 맞췄다.

특히,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활용 범위 ▲활용 과정의 표기 지도 ▲9세 이상 안내와 사전 교육 실시 ▲학생 개인정보 입력 및 취급 주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평

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세부 방안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행지침과 함께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사가 다양한 여건과 맥락, 교과 특성을 반영해 평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시행지침과 이해하기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과 운영 사항을 안내한다.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 워크숍 운영 등 새 학기를 앞두고 2026년 학교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2026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지난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중등 평가 영역에 제시했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평가에서 경기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중등교육과'에서 24일 이후 내려받을 수 있다.

송민수 기자

'2026년 용인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6년 용인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상상력, 용인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3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안을 접수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지역 사업장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공모전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팀 단위로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경제 ▲주거·교통 ▲문화·복지 ▲환경·안전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는 물론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 받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단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현성을 높

이기 위해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 과정을 운영한다.

제안 심사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책 발표회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우수제에는 시상상을 수여한다. 채택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용인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관(☎031-6193-26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창의적인 시각이 숙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 이번 공모전의 의미가 있다"며 "용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행궁동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3~4월 매주 토요일 화서문로 220m 구간 운영...보행 중심 거리 조성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토요일 화서문로 34번지부터 신흥로 47번지까지 220m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다.

3~4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중심 거리를 조성한다.

시범 운영은 ▲새빛북쪽 설문조사와 카드데이터 분석 ▲주민자치회·상인회 간담회(6차례) ▲인근 학교 주차장 공유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지난 1월 주민자치회·상인회의 상생 협의로 운영 구간을 기존 320m에서 220m 축소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는 운영 용역으로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와 보행 안전 관리, 현장 안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근 학교 주차장 1개소 100여 면을 공유해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상권 이용객과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시범 운영 기간에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 상권 변화 등을 검토하고, 주민·상인회 협의를 거쳐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주민자치회와 상인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생협치의 덕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궁동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도단위 대회 앞두고 법정 안전교육

종목가맹단체·개최 시군 관계자 80명 참여...재난 대응·현장 안전관리 실무교육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16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를 비롯한 도내 4개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종목가맹단체 경기운영진과 대회 개최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육상 등 종목가맹단체 임직원과 대회 개최 시·군 관계자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특히 실제 대회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종목가맹단체는 경기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종목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기장 내 위험요소 관리, 선수 및 관객 보호,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 등 대회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는 법정 안전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비롯해 국내 체육행사에서 발생했던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대회를 개최하는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경기장 시설 안전점검 절차,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기준, 관객 및 선수 이동 동선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최지와 종목단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은 스포츠안전재단 소속 전문 강사 2명이 참여해 총 6시간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난 대응체계 구축, 현장 운영 관리까지 실제 대회 상황을 가정한 사례 중심 교육과 실무형 강의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와 현장 의사결정 방법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였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회 안전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필수 운영 요소로 인식하고,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체육행사의 기본 조건"이라며 "도단위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관계자가 법정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현장 중심의 사전 준비를 강화해 선수와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2월 26일부터 경기도, 광주시, 스포츠안전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기장 안전관리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겨울 남한산성 담은 일러스트 엽서 출시...지역 예술인 협업 눈길

수어장대·행궁 등 주요 공간 설경으로 재해석...문화유산 기반 콘텐츠 확장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 경기도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겨울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엽서 4종을 제작하고 2월 말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 엽서는 남한산성의 주요 공간을 겨울 풍경 속에서 재해석한 시리즈 형태로 기획됐다. 수어장대, 남한산성 행궁, 동(東)암문, 역사문화관 건물을 각각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해 공간별 특징과 분위기를 담았다.

수어장대 엽서는 설경 속 처마선과 단청의 조형미를 강조해 전통 목조 건축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며, 행궁 장면은 눈 덮인 담장과 전각을 중심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를 통해 내부 공간의 고요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암문 작품은 석과 나무의 돌출과 설경의 대비를 활용해 방어시



설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냈고, 역사문화관을 담은 엽서는 현대 건축과 겨울 야경을 결합해 전통 유산과 현대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표현했다.

송민수 기자

안성시, 경기도 360°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안성맞춤 360°통합돌봄도시 구축

안성시는 지난 19일 경기도 360°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 내 통합돌봄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안성시는 "정든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따뜻한 안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퇴원환자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운영, 재택의료센터 운영의료기관인 서안성의원과 농민의원에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방문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동·서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읍·면·동

이 함께 하는 「AIP 코디네이터」 지원 강화로 보다 꼼꼼하게 대상자를 돌보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안성맞춤 360° 통합돌봄도시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경기도 360°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 평가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모델로 호평 받으며 공모에 최종 당선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안성시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예산 1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퇴원환자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설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퇴원환자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을 설치해 급성기 치료 마친 뒤 곧바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퇴원 환자에게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지원하여 퇴원후 재입원을 하거나 본인 원치 않게 평생 살아 왔던 집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둘째,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 확대
병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로 구성된 방문의료·돌봄팀이 더 많은 대상자의 가정

전체적으로 체도를 낮춘 색감과 통일된 설경 표현을 적용해 시리즈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도 특징이다. 과장된 연출보다는 건축 요소와 공간 구조 중심의 구성을 통해 남한산성 고유의 장소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업은 지역 예술인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유산 기반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한 기획으로, 공간의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콘텐츠형 문화 굿즈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관계자는 "겨울 남한산성의 공간성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었다"며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역사문화관 굿즈의 다양성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창작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과천시, 도시농업센터

'도시농업 텃밭' 분양

과천시는 갈현동 과천시 도시농업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텃밭' 분양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텃밭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과천시는 지난해 갈현동에 도시농업센터를 조성했으며, 이번 텃밭 분양을 시작으로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과천시민과 관내 단체이며, 접수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텃밭 분양 규모는 개인 10㎡, 단체 40㎡로 운영되며, 신청자 가운데 개인 40명과 단체 5곳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텃밭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개장은 3월 28일 예정이다. 개인 이용료는 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수확물의 50%를 지역 사회에 나눔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구획 정비와 표찰 설치, 농업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천 지역 공방 38곳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여

이천시는 지역 도·공예 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지역 공방 38곳이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가구, 조명, 키친·테이블웨어,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소개하는 국내 대표 리빙 전시회다. 지난해에는 약 1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국내외 바이어와 유통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참가는 이천시가 추진하는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자기·공예 공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공방들이 소비자

와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상담을 통해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매년 주요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박람회에서 참가 업체들은 생활도자와 테이블웨어, 공예 소품, 오브제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가 직접 제작 과정과 작품 특징을 설명하는 현장 중심 운영도 진행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천 공예 제품의 인지도 높이고 유통망 확대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체계적인 홍보 지원을 통해 이천 도·공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겠다"며 "지역 도·공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시, 31개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16억7천만원 투입

화성시는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16억7000만원을 투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전체 모집 물량은 111개 기업이다. 화성시는 이 중 28%, 31개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에서 물량이 가장 많다.

시는 31개 기업을 선정 후 생산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와 공정관리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초단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선정 기업당 최대 5000만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이다.

스마트공장 전문가로 구성된 DX멘토단이 기업 컨설팅에 참여,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과제 완료까지 약 7개월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20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기도테크노파크에 사업수행을 맡기고, 24일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곧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도내 최대 규모 지원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을 이룰 수 지역 제조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